

# SAMSUNG 90인치 QLED·웨어로봇

# LG 롤러블 OLED, 수트봇 관심

>> 1면 '5G·AI 등 융복합 시대...'서 계속

**기아** '감성주행' 콘셉트 차량제어 주목  
**SK** 5G기반 모빌리티 핵심기술 첫 선

또 미국 하만과 협력해 선보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장비 '디지털 콕핏'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CES에서 디지털 콕핏을 공개했었는데 이번 CES에서 더욱 향상된 기술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네이버는 이번에 처음으로 CES에 참가해 로봇과 인공지능 제품을 선보인다.

### ◆車 업계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고도화 집중

현대·기아차는 올해 CES에서 자율주행 신기술을 대거 선보인다. 모빌리티 고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래형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어갈 기술 리더십을 확고하게 다지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지난 2일 공개된 '엘리베이트 콘셉트 카'의 티저 이미지에 바퀴가 달린 로봇 다리 4개를 이용해 기존 이동수단이 접근할 수 없었던 위험한 지형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미래형 자동차가 묘사됐다.

기아차는 자율주행보다 한 단계 발전된

'감성 주행'을 콘셉트로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최초로 선보인다. READ 시스템은 AI 머신러닝 기술과 고도화된 카메라 및 각종 센서, 그리고 차량 제어 기술이 결합된 혁신 기술이다.

가속과 감속, 진동, 소음 등 다양한 주행 환경과 실내·외 환경 조건 속에서 운전자가 반응하는 생체 정보와 감정 상태를 학습하고, 차량 내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운전자의 감정 상태와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출한 뒤 이를 기반으로 해당 상황에 맞는 음악과, 온도, 조명과 진동, 향기 등 최적화된 실내 환경을 운전자에게 능동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기아차는 READ 시스템에 적용된 세계 최초의 가상 터치식 제스처 제어 기술인 'V-터치'와 '음악 감응형 진동 시트'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인력과 전기 동력

을 동시에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반의 4륜 전기 자전거 '시드 카(SEED Car)'도 공개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는 허공에 그린 운전자의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기술' 등 미래차 신기술을 대거 선보인다. 현대모비스는 '포커스 온 더 퓨처'를 주제로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커뮤니케이션 라이팅 ▲수소연료전지모듈 발전 시스템 등 현재 주력 중인 정보통신(ICT) 융합기술과 친환경 기술을 전면에 내세운다.

### ◆SK, 공동 부스에서 미래 모빌리티 기술 공개

SK그룹은 SK텔레콤을 중심으로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등 핵심 4사가 올해 최초로 공동 부스 형태로 CES에 참가한다. 특히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전시 부스가 밀집한 노스 홀에 부스를 마련



기아차가 CES에서 공개할 1인승 READ Me 모델.

/기아차

해 SK만의 차별화된 이동서비스(모빌리티)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들은 공동 부스에서 ▲단일 광자 라이다(LiDAR) ▲HD맵 업데이트 등을 소개한다. '단일 광자 라이다'와 'HD맵 업데이트'는 5G 시대에 본격화할 자율주행 분야에서 '눈'과 '두뇌' 역할을 할 핵심 기술이다.

SK이노베이션은 세계 점유율 2위의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 LiBS(리튬이온 배터리분리막)와 폴더블폰의 핵심 소재로 꼽히는 투명 PI필름 'FCW(플렉서블 커버 윈도우)'를 선보인다.

SK텔레콤은 국내 이동사 중 유일하게 CES에서 2개의 전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SK 공동부스에서는 단일광자LiDAR, HD맵 업데이트 등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며, SM엔터테인먼트 공동부스에

서는 홀로박스, 옥수수 소셜 VR 등 5G 실감 미디어를 공개한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중심 모빌리티'를 콘셉트로 자율주행,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인포테인먼트, 텔레메틱스 등에 필수적인 차량용 D램과 낸드플래시를 전시한다. 자율주행 환경에 필수적인 고품질 D램, HBM(고대역폭메모리), 엔터프라이즈 SSD를 선보일 예정이다.

SKC는 자동차 케이블 경량화에 유리한 'PCT 필름', 자동차 유리 파손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리 접합 'PVB 필름', 전기차 배터리의 무게를 줄여주는 방열소재 '그라파이트 시트', 전기차 내 전력반도체에 쓰이는 '탄화규소(SiC)', 친환경 폴리우레탄 내장재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구서윤 기자 ysw@metrosecoul.co.kr

## SKT 자율주행 눈·두뇌 역할 핵심 '광자 라이다'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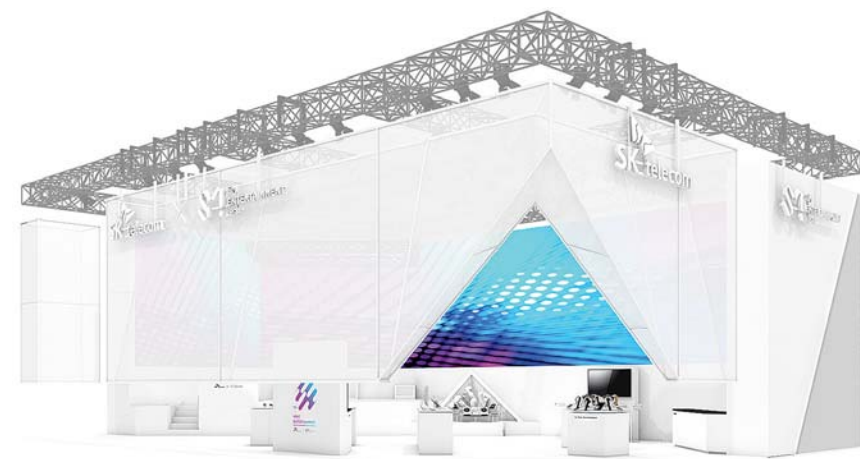


### SM엔터테인먼트와 공동 전시 부스 5G 시대 차세대 미디어 콘텐츠 구현

SK텔레콤은 오는 8일(현지시각)부터 11일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19'에서 5G 시대의 미디어·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5G×Next Entertainment(SKT 5G와 SM 콘텐츠가 만드는데 차세대 엔터테인먼트)'를 테마로 센트럴 홀에 공동 전시 부스를 마련, 5G 시대의 차세대 미디어 콘텐츠를 구현한다.

또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등과 함께 'SK의 혁신적인 모빌리티(Innovative Mobility by SK)'를 테마로 노스 홀에 공동 전시 부스를 꾸려 SK텔레콤이 보유 중인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소개한다.



SK텔레콤-SM엔터테인먼트 공동 전시 부스 이미지.

/SK텔레콤

active Mobility by SK)'를 테마로 노스 홀에 공동 전시 부스를 꾸려 SK텔레콤이 보유 중인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소개한다.

SK텔레콤은 SM엔터테인먼트와의 공동 전시 부스에서 ▲소셜(Social) VR ▲홀로박스(HoloBox) ▲인공지능 미디어 기술 등을 선보인다.

먼저 양사는 SK텔레콤의 가상현실 플랫폼 '소셜 VR'과 SM엔터테인먼트의 노래방 플랫폼 '에브리싱(everysing)'의 컬래버레이션 콘텐츠 '소셜 가상현실(VR)×에브리싱'을 공개한다. '소셜 VR×에브리싱'은 VR 기기를 쓰고 가상현실로 들어가 다른 참여자와 함께 노래 부를 수 있는 서비스다.

다와 'HD맵 업데이트'는 5G 시대에 본격화할 자율주행 분야에서 '눈'과 '두뇌' 역할을 할 핵심 기술이다.

특히 '단일 광자 라이다'는 지난해 2월 인수한 스위스 기업 IDQ의 양자 센싱 기술을 적용한 첫 결과물이다. 단일 광자 수준의 미약한 빛을 감지하는 센서를 라이다에 적용, 차량의 탐지 거리를 늘린 점이 특징이다. 단일 광자 라이다는 300m 이상의 장거리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어 향후 자율주행 시대에 전방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는 '눈' 기능을 할 전망이다.

'HD맵 업데이트'는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가 차선, 신호등, 표지판 등의 교통 정보를 감지해 전달하면 이를 취합·분석해 기존 HD맵에 업데이트하는 기술이다. 자율주행차는 HD맵에 표시된 각종 정보를 토대로 주행 판단을 내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5G 시대에 혁신적 변화를 맞이할 미디어·모빌리티 분야와 관련된 첨단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이번 CES 참가를 계기로 차세대 미디어·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ICT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BMW, 비전 i넥스트 첫 가상현실 시운전

### 'BMW 인텔리전트 개인비서' 기술 의사소통하며 디지털 서비스 조작



BMW는 'CES 2019'에서 BMW 비전 i넥스트 최초로 가상현실 시운전을 선보인다.

'BMW 인텔리전트 개인비서'는 육성으로 차량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기능에 접속할 수 있는 기술로, BMW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술이다. BMW 그룹은 이번 시연을 통해 차세대 전략인 '넘버원 i넥스트'의 향후 핵심 영역으로 정의된 디자인, 자율 주행, 커넥티드 기술, 전기화 및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BMW가 이번 CES에서 가상현실 시운전을 선보인다.

/BMW 코리아

역량을 선보일 계획이다.

시운전 시뮬레이션이 시작되면 'BMW 인텔리전트 개인비서'가 당일의 일정을 제안하고 완벽한 주행을 위한 계획을 제공한다. 가상현실용 고급과 특별히 고안

된 콘셉트 공간을 통해 참가자들은 이 가상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다.

처음에는 참가자가 직접 BMW 비전 i넥스트를 주행하지만 곧 차량이 주행기능을 넘겨받아 차량 스스로 운전하는 '이즈' 모드로 전환된다. 해당 모드에서는 BMW 인텔리전트 개인비서와 운전자가 의사소통하며 화상 회의에서부터 쇼핑, 스마트 홈 기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안 받고 조작할 수 있다.

이번 시연에서 체험할 수 있는 BMW 비전 i넥스트는 BMW의 혁신 기술이 집대성된 기술적 플래그십 모델로 미래 이동성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064@

## 벤츠 '더 뉴 CLA' CES서 세계 최초 공개



메르세데스-벤츠는 'CES 2019'에서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CLA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더 뉴 CLA에는 벤츠가 2018 CES에서 선보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BUX가 적용됐다. 더 뉴 CLA에는 탑승자의 움직임을 통해 차량의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MBUX 인터리어 어시스턴트부터 증강 현실 기술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자연어 인식, 운전자에게 피트니스 컨설팅을 제공하는 에너지이징 코치까지 다양한 스마트 기능들이 탑재됐다.

벤츠가 북미 최초로 공개하는 EQC는 벤츠 EQ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차로,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EQC.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다임러의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 도래를 알리는 상징적인 모델이다. 크로스오버 SUV(스포츠퉂유틸리티차량) 모델로 차량 앞뒤에 위치한 두 개의 전기 모터는 복합 출력 300kW로 주행거리는 450km가 넘는다.

/정연우 기자